

2025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8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림

성경: 빌 1:19-21 상, 2:2, 4:8, 11-13

**I. 바울은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웠다 — 빌 4:11 하-13, 영한동번 찬송가 564 장.**

- A.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골 3:4), 그리스도를 살고(빌 1:21 상), 그리스도를 확대하고(20 절), 그리스도를 얻고(3:8, 12), 교회생활을 하는(1:8, 19, 2:1-4, 19-20, 4:1-3) 비결을 배웠다.
- B. 과거에 바울은 완전히 유대 종교 안에서 율법 아래 있었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 안에서 발견되었지만, 주님께 돌이켰을 때 율법과 그의 이전 종교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 — 고후 12:2 상.
- C. 이제 바울은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로 적셔져,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열망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에만, 그리스도는 표현되시고 확대되실 것이다—빌 3:9 상, 1:20.
- D. 우리는 한 면으로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빌 4:11-12), 또 다른 한 면으로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안이 좋을 수 있다(8 절).
- E.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간 미덕들로 삶으로써 무한히 위대하신 그분을 확대한다. 이러한 미덕들을 지닌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빌 1:20.

**II. 우리가 믿고 침례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다(고전 1:30, 롬 6:3, 갈 3:27). 이제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 안에 거주하고 그분과의 교통 안에 머물러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요 15:4-5).**

- A.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합병체의 실재 안에 사는 것이다—요 14:2, 10-11, 17, 20, 23, 계 21:3, 22, 출 16:32-34, 히 9:4, 계 2:17.
- B. 우리는 우리의 왕이자 궁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이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왕비와 왕궁, 곧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실 수 있다—시 45:13, 8, 요 15:4-5, 엡 5:27, 계 22:5, 롬 5:17, 비교 아 6:4.
  - 1.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 곧 우리의 주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주함으로 그분 안에서 생활하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 요 15:4-5, 요일 4:15-16, 계 21:22, 신 33:27 상, 시 90 편.
  - 2.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매 순간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 밖에는 죄들과 많은 환난이 있기 때문이다 — 시 90:3-11, 요 16:33.
  - 3. 하나님을 우리의 처소,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한 체험이다 — 시 91 편.

- C.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한다 — 요 14:21, 23.
1.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신다. 이 거처는 상호 거처이며, 이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 — 요 14:23.
  2.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더 갖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 더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더욱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 고전 2:9-10, 엡 6:24.
- D.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기름바름의 내적 가르침에 주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한다 — 요일 1:5, 7, 2:20, 27.
1.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으신 분이시자 기름 부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로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을 내적인 기름바름으로 누린다 — 히 1:9, 3:14, 고후 1:21-22.
  2. 기름바름은 우리 안에 계신 복합되신 영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바른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 기름바름은 생명의 내적 감각, 내적 의식에 의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분의 지체들에게 전달해 준다 — 시 133 편, 고전 2:16, 롬 8:6, 27.
  3. 머리이신 분은 몸의 한 지체가 움직이기를 원하실 때 내적 기름 바름을 통하여 그러한 원하심을嫩지시 알려시며, 우리가 그 기름 바름에 복종할 때 생명은 머리이신 그분에게서 우리에게로 자유롭게 흐른다. 우리가 그 기름 바름에 저항하면, 머리이신 분과 우리의 관계는 방해받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은 중단된다 — 골 2:19.
  4.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로 처리받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며 몸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영의 기름 바름을 가지며 몸의 교통을 누릴 것이다 — 엡 4:3-6, 15-16, 고후 2:12-15.
- E.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성경의 항상 있는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신 현재의 말씀을 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한다 — 요 5:39-40, 6:63, 고후 3:6, 계 2:7.
1. 밖에 있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 우리는 비밀한 분이신 주님에 대한 설명과 정의와 표현을 갖고, 안에 있는 살아 있는 말씀에 의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실지적인 분이신 주님의 임재를 갖는다 — 엡 5:26, 6:17-18.
  2. 우리가 주님의 항상 있는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즉각적이고 살아 있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 요 8:31, 15:7, 요일 2:14.
  3.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말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해 넣으실 수 있다 — 요 15:7, 고후 2:17, 13:3, 고전 14:4 하.
- F. 믿는 이들은 비결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 곧 배우는 이들이다. 여기서 비결을 배운다는 것은, 믿는 이들이 실재의 영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의 실지 상태의 모든 실재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 요 16:13, 엡 4:20-21.
1.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사람의 본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인간 생활은 그분 자신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는 생활이었다(요 5:19, 30).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인간 생활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 사람에 대한 그들의 관념이 개혁되었다(빌 3:10, 1:21 상).
  2.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인성을 부인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고’(히 5:8),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빌 2:8).
  3.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순종의 생명인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운다(마 11:29). 제자는 자신의 인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

4. “나는 회복 안에서 십팔 년 동안 위치만 니 형제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았다. 내가 니 형제님에게서 본 모든 것이 나를 제자로서 훈련시켜 주는 것이 되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2 장, 96-97 쪽).

**III.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영한 동번 찬송가 784 장).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는 말로 이루어진다.**

- A. 우리는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 그것들에 대해 주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분은 가장 잘 들어주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
- B. 우리는 주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을 때, 주님과 친밀함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에 주님을 친밀하게 접촉하는 것이 주님과 통상적인 교통을 갖는 것보다 수백 배 더 낫다. 이렇게 주님을 접촉함으로 우리는 생명이 자라게 된다 — 시 62:6-8, 56:8, 비교 삼상 1:15.
- C.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 본 일이 없고,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을 주님과 한 번도 나누어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의 사적인 일들에 관해 주님과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다면, 그는 주님과 한 번도 친밀한 교통을 가져 본 적이 없고 주님을 전혀 깊이 안 적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릴 수 있다.
- D. 주님은 우리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해 동정하신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짊어지고자 하시며, 우리가 하는 말에 기쁘게 귀 기울이신다. 살아 있는 생명수이신 그분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반석이신 그분께 말해야 한다 — 민 20:8, 고전 10:4, 출 17:6, 영한 동번 찬송가 248 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02 장).
- E. 시편 102 편의 제목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 여호와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불평이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불평하는 동안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 롬 8:28-29.
- F. 시편 73 편은 추구하는 시편 작가의 진실한 기도를 기록한 것이다. 이 시편 작가는 자신은 고난받는데 악인들은 잘되는 것 때문에 자칫 실족할 뻔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한 것이 헛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 잘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온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 시 73:12-16.
1. 시편 작가의 당혹감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얻었다(시 73:17). 하나님의 성소 곧 그분의 처소는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엡 2:22), 또한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이다(딤후 3:15).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
  2. 하나님께서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해 갖고 계신 의도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누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궁극적인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 빌 1:19-21 상, 3:7-8, 사 43:7, 고전 10:31, 6:20, 벰전 4:11, 엡 3:16-21.